

## 建築教育의 現況과 展望

潘 好 鎔

(清州大 理工大學長)

### I

과학과 더불어 通信, 交通手段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나라 전역이 1일 생활권에 들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1일 생활권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천해 가면서 생활의 질도 날로 향상되어 가는 시대를 맞이한 것은 오직 教育의 決算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分野의 教育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는 하나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긴박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教育目標, 教育方法, 教育環境 등에 관한 再檢討와 이를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建築教育에 관한 현황과 歐美 각국의 사정을 비교하면서 문제점과 改善方向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建築의 학문적 本質이 藝術學問과 技術學問이 종합된 하나의 開發學問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教育課程을 工學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넣어 두고 학교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을 뿐 그 教育內容이나 教育方法이 거의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建築教育은 人間行動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평가하여 人間생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建築空間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諸分野의 기술과 지식을 종합하여 藝術的인 차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건축교육은 建築家로서의 기본적인 思考力과 創造能力의 개발, 광범위한 지식을 종합하는 조직력 있는 思考의 개발, 人文敎養的 성격을 가미한 全人的 人間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教育方法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技術的 文明에 응용할 수 있는 專門人 양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建築歷史와 建築論 과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建築敎科課程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듯하다. 이런 과목을 커리큘럼에서 강화하여 建築哲學을 가지고 古典건축과 現代건축, 그리고 현미건축간에 서로의 조화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현행 建築教育의 커리큘럼은 대체적으로 建築技術 전반과 藝術分野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140學點制를 실시함으로써 어려움이 더할 뿐 아니라 建築設計 및 計

測, 構造, 施工, 設備 등 전문분야가 나누어져서 여기에 都市計劃分野가 건축의 범주에 들어오므로써 각 分野別로 완벽한 專門教育을 달성하려면 현 4년제의 修學年限은 짧으며 建築學科는 一個大學으로 독립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一般工學系와는 분리되어 學部와 같은 기구로 再編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美國에 있어서 建築教育의 특징은 대학마다 그 대학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며, 學位의 종류 역시 다양하게 주고 있어 획일적인 교육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대략 5년의 수업 연한은 풍부한 내용과 현실에 대응하는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理論보다는 實務를 위한 한, 스튜디오教育(設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專門教育은 學部보다 大學院課程으로 옮겨가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또한 法學, 醫學과 같이 建築도 他學科에 비하여 教育年限이 긴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으로 미루어 건축 교육에서는 5년제가 어려우면 140學點制에서 150~160學點制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III

외국에서는 學生選拔을 할 때 개인별 성장 배경과 능력, 자질 등을 다양하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適性이나 能力別選拔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學力考查成績으로 대학을 지망할 뿐 아니라 技師試驗이나 入社試驗마저도 ○×式 또는 客觀式 출제에 의하여 선발함으로써, 學校教育이 귀중한 思索이나 자기 주장 또는 創意力을 키우지 못하는 教育方式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칠판 위주의 암기식 강의는 모든 것을 종합화하여야 하는 建築教育에 不適當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건축교육에서 제일 비중이 큰 建築設計 과목이나 實驗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이런 要因에 의한다고 할 수도 있다. 사실 設計 및 實驗時間이 4시간이라고 할 때 그 설명만을 들으려면 단 10분만에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設計나 實驗時間이란 설명만으로는 될 수 없는 중요함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實驗研究를 통하지 않으면 고도의 技術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美國의 경우, 設計는 전학년을 통하여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이다. 15~20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指導를 하며, 課題는 캠퍼스내에 지어지는 실제 건물이나 實存할 과제를 택하여 설계시키고 주변 環境과의 조화를 평가한다. 설계를 대부분 設計室에서 하계끔 教育施設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획일적인 教室形態에서 벗어나 創造的인 作業場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 IV

현재 각 대학의 建築學科 專任教授數는 평균 4~5명 정도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專擔助教가 없으며 大學院生 助教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實驗擔當 조교가 있는 대학은 불과 몇 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實驗室 운영이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設計教育 문제로서 設計科目 학점은 전체 專攻學點 중 20~25%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며, 한 과목을 1인의 教授가 담당하고 2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고 있다. 設計科目이 建築科의 핵심이 되는 實技科目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設計教育의 정상화를 위하여 2인의 교수가 과목을 담당하고 1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는 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1인당 15~20명의 학생에게 設計指導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教授數를 확보해야 한다.

建築科 교수들의 資質 문제도 중요하다. 建築은 開發學問이기 때문에 교수는 항상 새로운 開發 飛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設計業務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學校教育에 이를 活用함으로써 實務와 생기는 틈을 메워야 한다. 美國에서 교수는 教育과 研究만이 주어진 사명이며, 1인의 교수가 대략 週當 講義時數 6시간 1 과목만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建築史 과목을 設講해 놓고 한 학기 동안 古代建築史는 K교수가, 中世建築史는 L교수가, 現代建築史는 Y교수가 담당하여 강의의 專門化를 꾀함으로써 수준 높은 지식을 쌓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

로써 高度의 技術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施設, 조교, 敎育기자재, 敎授, 도서 등 여러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敎育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구나 建築科 교수는 海外視察이나 研究 및 研修를 많이 하여야 함은 물론 國內外 학생의 國內의 시찰과 교류를 가지게 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있는 장의력을 키워야 한다.

## V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학과는 專用有效室 면적을 220명 내외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他學科와 공동 사용하는 實驗室을 갖는 대학이 많다. 최소 200명 定員인 경우 300~350명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 대부분 專攻實驗室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既導入된 실험기자재는 管理運營상의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專用實驗室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실험기자재를 잘 관리한다고 캐비닛에 보관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實驗기자재는 24시간 활용하도록 실험실에 비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常駐관리요원이 필요할 것이다. 設計課題가 주어지거나 레포트 題目이 주어질 때 학생들이 자료의 입수 때문에 당황해 한다. 따라서 자료의 體系的 수집, 전달 등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分類·整理, 傳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資料室, 圖書室이 一體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敎授 노력의 加重만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좋은 분위기의 設計室은 학생으로 하여금 의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설계실 분위기는 잘 꾸며 놓은 개인 設計事務室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황막한 분위기에서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私立大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私學의 財政支援 강화가 아쉽다.

## VI

이상 建築敎育에 있어서 현황과 당면한 몇 가

지 문제점 및 改善方向을 열거하였다. 科學의 發達로 모든 것이 自動化된 현대 사회는 黃金萬能 위주로 잘못 인식되면서 흔히 人間의 危機時代라고 말한다.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科學技術文明社會에서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거나 자기 主體를 갖지 못하고 물질에 이끌려 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科學技術文明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敎育, 즉 人性敎育과 全人敎育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의 將來가 敎育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敎育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제까지 社會病理의 하나인 一流病이나 大學出身選好 풍조 또는 출신별 人脈 등으로 선발 또는 승진이 되고 우대되는 풍조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킴으로써 敎育에 미치는 影響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社會風潮가 시급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흔히 학교 建物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敎育委員會에서나 또는 그 학교의 長이 設計指針을 만들어 設計用役을 주고 이것을 근거로 건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學校施設을 사용하는 사람은 敎育委員會도 아니고 그 학교의 長도 아니며 학생들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敎育專門家, 建築專門家가 참여하고 建築計劃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敎育問題만은 豫算에 얽매어 기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豫算에 얽매인 學校建築은 그만큼 학생의 敎育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건축은 人間生活의 容器이기 때문이다. 좋은 분위기의 학교 그것은 좋은 분위기의 사회로 이끌어질 것이다.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現場에서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產學協同 체계의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산업계의 이론이나 기술이 새로우면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한편, 會社見學, 방학 동안의 現場實習을 통해 能力과 人間으로서 소양 그리고 所信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淸州大學에서는 재학중 現場 또는 設計事務所에 現場實習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建築敎育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

단히 노력해 왔고 또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金眞一, “研究施設の 實狀과 改善,” 「大學教育」, 통권 제12호, 1984, 11월호.  
 魯貞善, “해의 건축계 대학의 교과목 분포에 대한 분석과 검토,” 「大韓建築學會誌」, 제18권 제57호, 1974, 3-4월호.  
 朴漢圭, “大學建築設計의 教育方法 改善에 대하여,” 「大韓建築學會誌」, 제24권 제94호, 1980, 5-6월호.  
 徐商雨, “美國 大學의 建築教育內容과 施設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제27권 제115호, 1983, 11-12월호.  
 宋鍾爽, “우리나라 建築系 大學教育에 대한 現況分析,” 「大韓建築學會誌」, 제17권 제52호, 1973, 5-6월호.

安瑛培, “美國의 建築教育方式에 대하여 —프린스턴 大學을 中心으로—,” 大韓建築學會, 1983년도 秋季 學術發表會 特別講演會講演集, 제3권 제2호.  
 劉熙俊, “美國 大學 建築科 教授陣의 設計評價와 關心 分布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제25권 제102호, 1981, 9-10월호.  
 ———, “美國의 教授方法 評價에 對하여,” 「大韓建築學會誌」, 제17권 제52호, 1973, 5-6월호.  
 李景會·朴胤成·尹定燮·金眞一·尹道根, “建築工學 模型教科課程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제21권 제78호, 1977, 9-10월호.  
 李海成, “學會活動과 우리나라 建築技術教育의 現況,” 建築技術人力開發 심포지움, 大韓建築學會주최, 1977.  
 成性權, “大學 建築教育의 問題點,” 「大韓建築學會誌」, 제17권 제52호, 1973, 5-6월호.  
 Architecture, AIA Journal, August 1984.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ulletin, 1981—1983.  
 UC Berkeley General Catalog, 1981—1982.

<投 稿 案 內>

“大學教育”誌 第16號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한 論說, 각종 學術情報, 現場提言, 體驗談 및 新刊紹介 등으로 다음에 맞는 글
 

|         |            |
|---------|------------|
| ① 論 壇   | ② 學科別 教育課題 |
| ③ 나의 體驗 | ④ 現場提言     |
| ⑤ 教育資料  | ⑥ 新刊紹介     |
2. 枚 數—200字 原稿紙 25枚, 35枚 또는 44枚(⑥은 14枚 또는 25枚)
3. 期 限—1985年 5月 20日
4. 稿 料—一枚當 2,500원(체택된 原稿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會會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混用하되 漢字를 制限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稿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